

## 자유무역이 최선의 정책이다

보호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보호주의는 항상 위험하고 어리석은 정책이지만, 특히 요즈음처럼 세계의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보호주의자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 나라 경제가 번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틀렸다.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은 수많은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고,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보호주의는 번영이 아니라 가난만을 가져올 뿐이다. 보호주의는 국내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한다. 보호주의 때문에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으며, 보호주의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서 최종제품을 만드는 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 보호무역을 통해 철강의 수입을 막으면 국내의 철강 가격이 올라서 자동차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철강을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의 원가가 높아진다. 보호무역을 바보들의 놀이이다.

보호주의 때문에 경제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평화를 갈구하는 선한 세력들, 문명의 동지들은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반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보호주의로 구체화되고 있는 경제적 민족주의는 무지의 산물일 뿐이다.

250 년 전 법의 아버지 몽테스키외는 “평화는 자유무역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라고 했다. 서로 다른 여건을 가진 두 나라가 자유무역으로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것은 파는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은 사오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나라는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간다.

평화는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가장 소중한 열매이다. 자유무역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교역이라는 공통된 문화로 묶어 낸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 관습과 법과 기대와 필요와 재능을 습득한다.

자유무역은 세계 인류를 서로에게 이로운 협력의 끈으로 묶어 낸다. 서울과 부산 사이의 교역이 두 지역 모두에게 이롭듯이, 서울과 상해 사이의 교역, 부산과 오사카 사이의 교역, 서울과 뉴욕 사이의 교역도 서로에게 이롭다. 자유무역은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과 국가에게 이익을 준다.

수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자유무역이 평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생긴 최대의 비극은 아마도 세계 제 2 차 대전일 것이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의 교역량은 70%나 줄어 들었다. 가장 큰 원인은 1930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이었다. 그것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자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 관세를 높임으로써 보복에 나섰다. 저명한 경제학자 마틴 울프의 말대로, “국제 교역량이 감소는 각국들로 하여금 자급자족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중에서 특히 일본과 나치의 독일이 심했다.”

그 일이 있고나서 머지않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이 일어났다.

자유무역은 전쟁의 위험을 줄이며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생명을 구한다.

자유무역은 더 많은 인류에게 번영의 열매를 나눠준다. 무역의 자유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 그럴수록 우리 보통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처럼 자유무역은 사람들에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게도 해준다. 자유무역은 상품과 아이디어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문화는 풍부해진다.

자유무역은 일차적으로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주지만,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돈만으로 측정될 수 없다.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생명 그 자체이다. 더욱 자유롭고, 더욱 충만한 생명. 그리고 전쟁의 공포함으로부터 벗어난 생명, 그것이 자유무역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이 문서에 서명한 우리들은 근시안적 탐욕 때문에 무역 장벽을 높이려는 세상의 모든 정부들에게 보호주의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탄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무역장벽들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부들에게 외친다. 당신 나라의 국민들이 당신 나라의 논밭과 공장과 머리에서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 모든 곳에서 생산되는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게 하라. 그리하면 더 큰 번영과 더 풍요로운 삶과 더 큰 평화의 축복이 찾아올 것이다.

\* 위 글은 <http://atlasnetwork.org/tradepetition/> 에 실려 있는 취지문 원본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이 정리한 것입니다.